

온 인류의 아버지 기념일

이 봉헌의 개요

온 인류의 아버지 기념일(8월의 첫 일요일)에 신심자들은 그들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봉헌한다. 봉헌을 바치는 기념일 앞의 7일동안 매일 20-30분씩 기도와 묵상을 바치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8일의 기간동안 가능하면 매일 미사의 거룩한 희생에 참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8일의 기간 동안 또는 봉헌 이후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또한 권하는 바이다.

아래는 8일의 연속으로 매일 해야되는 것들의 목록이다.
(매일 20-30분씩 시간을 내어 아래 기도들을 모두 바치길 바랍니다)

1. 준비 기도
2. 성부 화관기도(짧은 묵주기도)
3. 호칭기도
4. 매일의 묵상 (8일째 드리는 전적인 봉헌문도 포함되어 있음)

이 봉헌을 8월의 첫 일요일 전 7일 동안 해나가자. 그러면 이 봉헌의 마지막 8번째 날, 신심자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날이 온 인류의 아버지 기념일이 될 것이다.

아래 내용들은 봉헌 기도하는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준비 기도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청하며

-매일의 기도 봉헌은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하느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하는 모든 곳에 오시어 저희들을 축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일어서시어 당신의 자녀인 저희 안에 오시어 편히 쉬소서. 당신의 구원으로 저희를 입혀주시고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저희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부디 당신 사랑의 현존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어 저희가 당신을 알고 당신의 눈길 아래서 은총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서 모세에게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도 말씀해주소서.

당신이 온 인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널리 알리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뜻만을 행하기를 열망하도록 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어 당신께서 하나이신 참 하느님이요 아버지이심을 당신의 자녀들이 알게 하소서.

방탕한 자녀인 저희는 오로지 저희의 고향인 당신께로 되돌아가기만을 원하나이다. 아버지이신 당신께 다가가오니 부디 너희들을 만나러 달려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인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소서.

당신의 종 성모마리아와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저희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오며 저희 자신을 당신께 드리웁니다. 저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신심을 따름으로써 저희는 자유롭게 저희 자신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의 의지대로가 아닌 당신의 의지대로, 또한 하느님이시며
저희를 성화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이나 3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께서도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이시고 저희는 그 가지이므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통해 당신의
살아있는 성전인 저희 안에서 언제나 머무르소서.
저희를 축복해주시고, 당신의 자녀인 저희 가운데 함께 걸으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의 불로써 당신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저희에게 내려오게 하소서, 아멘.

성부 화관기도 (짧은 묵주기도)

이 화관기도는 매일의 봉헌 때 묵주를 이용하여 바쳐진다.

1. 십자가 - 성호경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께로 향하는 저의 여정에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로 하여금 저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주시고, 천국의 거룩한 축복받은 성인들이 저를 위해
전구하게 하소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연옥영혼들을 위해 지금 제가 기도드리오니 그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주소서. 아멘.

2. 큰 묵주알은 건너뛰다.

3. 성모송 세 알

첫째 알 : 성모송

둘째 알 : 나의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나이다. 저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어 저도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체를 통해 저를 붙잡아주시고 천상 본향으로 향하는
저의 여정에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여주소서. 아멘.

셋째 알 : 나의 하느님이시며 성화자이신 성령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의 여정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게 보내셨나이다. 부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화시켜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빛과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어 하느님의 현존이 제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아멘.

(첫째 단 큰 묵주알로 이동한다)

첫째 큰 묵주알에서,

첫째 - 주요 봉헌 기도 (Major Octave)

불순종과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에서의 추방

묵상합시다

- (1) 아담과 이브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선택
- (2)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창조하신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 (3) "여인" (마리아)이 불순종을 유혹한 뱀(사탄)의 머리를 짓부수어 승리하게 되리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약속

태초에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낙원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 사탄에 의해

유혹받은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뜻을따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하느님의 친밀한 현존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여인"이 이 분열(하느님의 뜻에 '아니오'라고 말한 죄악)을 가져 온 악마를 결국에는 패배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의 기도

작은 묵주알 8개 (Minor octave)

각 지향대로 기도문 암송

- 1) 찬미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2) 감사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3) (예물)봉헌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4) 참회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5) 상속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6) 순종 ("예"라고 응답함)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7) 충실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 8) 전적인 봉헌 :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둘째 주요 봉헌기도

(두번째 큰 묵주알)

구약시대의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임재 (함께하심)

구약 시대동안 하느님 아버지께서 현존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다. 구약 시대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불타는 덩불을 통해서, 불기둥(연기기둥)을 통해서, 계약의 궤를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에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신 뒤 그분께서는 매년 예배당에서 8일동안 축제를 기념할 것을 요청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계약의 궤를 통해 현존하시게 되자 솔로몬은 그 궤를 모실 웅장한 신전을 지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을 맞을 준비를 위한 봉헌식의 8일 축제를 기념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에 응답하셨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러 마카베오는 이 8일축제를 다시 제정하여 이교도들에 의해 모독되었던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였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현존이 그들과 함께 다시 머무르시게 되었다. (레위 8:33-36, 9:1-24, 역대기하7:1-9, 마카베오후서 2:1-12)

주님의 기도

8개 작은 묵주알 기도 (minor octave)

셋째 주요 봉헌기도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피앗

다음을 묵상하십시오.

- (1) 마리아의 "승리의" 피앗,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예" (순종, 응답)
- (2) 어떻게 마리아께서, 새롭게 계시된 하느님 현존(거룩하신 삼위 일체의 제 2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방주(피난처)"가 되었는지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말하였을 때 "예"라고 응답하셨다. 성령께서 마리아께 내려오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힘(권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 "그 여인"이신 마리아께서 하느님 뜻에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현존하실(있으실)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실제로,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며 또한 그분의 어머니(마리아)의 도움으로 쫓겨났던 하느님의 자녀들을 되돌리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새로운 방주"가 되셨다.

주님의 기도

작은 묵주알 8개

넷째 주요 봉헌기도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피앗

다음을 묵상하십시오

- (1) 예수님의 피앗,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분의 "예"라는 응답
- (2)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되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심
예수님께서는 게세마니 동산에서의 당신의 수난 동안 그분의 피앗을 하느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다. "나의 아버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에게서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26:39) 당신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세상에 가져온 죄(하느님의 뜻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와 죽음(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짐, 추방)을 물리치시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주셨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그분의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주요 봉헌기도

삼위일체의 삼위이시자 성화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심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신 후 아버지께 성령(삼위일체의 제3위)을 보내달라고 청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는

- (1)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이끄시기 위해서
- (2) 우리를 정화하고 순결하게 하시어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르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지셨다.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청하셨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구약 시대 때 계시처럼)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가능해졌다. (요한 14:16-17)

여섯째 주요 봉헌기도

하느님의 방탕한 자녀들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려는 선택 (회개)

다음을 묵상합니다.

(1)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아버지의 방탕한 자녀들임

(2)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로 돌아오는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신 기회

하느님 아버지의 방탕한 자녀인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도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의지, 죄 많음, 세속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으로 되돌아가도록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번째 주요 봉헌기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하나의 피앗(그리스도의 지체,몸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봉헌하고 또 그분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분께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께서 머무르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

하느님 아버지께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할 것을 동의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안에 오시어 머무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는 살아가신 하느님의 성전이 된다. (2코린 6:16) 다시 말해, 천국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마태 6:10)

여덟번째 주요 봉헌기도

새 예루살렘의 도래

우리의 구원사의 최후 결말(요한묵시록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묵상합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하고 인류가 마침내 하느님 아버지께로 완전히 되돌려지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영원히 사시는 때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옥좌로부터 거대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은 그분의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죽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슬픔이나 울음, 고통은 사라져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옥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또한 그분께서 "이 말씀들이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적어두어라." 또 그분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길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이요 마침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나는 생명수의 분수에서 값없이 물을 줄 것이다. 승리한 자는 이 유산을 가질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한묵시록 21:1-7)

십자가 또는 메달에서, 아래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옥타브(8) 봉헌 기도문"을 암송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옥타브(8) 봉헌 기도문

-이 기도는 성부 화관기도의 마침 기도임-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제 자신, 제 몸과 마음, 영혼을 봉헌하오니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창조에 대하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작품이며 경탄 그 자체입니다.

제게 생명을 주시고,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너그럽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을 당신께 바쳐드립니다.

당신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으며 섬기지 않고 영광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신의 자녀로써 제 상속(기쁨과 책임 둘 모두)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뜻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예"라는 응답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확고함의 은총과 믿음의 끈기를 청합니다.

지극한 사랑이시고 (저희를) 애정으로 돌보아주시며 자비 가득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현존 안에서 저는 진정으로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을 선언합니다. 제 자신(가족)을 당신께 드립니다. 또한 제 자신(가족)을 이제와 영원히 엄숙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당신의 자녀로써 청합니다. 성모마리아를 제게 보내시어 예수님께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제가 당신께 데려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성모님에 의해 준비되고, 예수님에 의해 봉헌되며 당신의 성령에 의해 정화된 살아있는 성전인 저와 함께, 또 제 안에 사시옵소서. 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살도록 하소서. 제가 당신의 자녀이듯 당신의 진실하고 친근한 친구가 되게 하시어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소서. 제가 죽을 때 제게 오시어 저를 당신 품으로 데려가 주소서. 아버지, 인류를 위해서도 청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세상에 평화를 보내시어 모든 자녀들이 당신과 하나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의 뜻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호칭기도 암송

호칭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노아의 방주로 8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의 표지로서 모든 사내아이는 태어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한다고 명하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와 그 자녀들이 당신께 드리는 8일의 봉헌기간을 마친후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의 8일 축제를 제정하시어, 당신께서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며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8일째의 정화 제사 때에 드러지는 정화 예식을 받아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하프의 음계(옥타브) 연주로 당신을 찬미하는 가운데 다윗 도성에 계약의 궤를 모셔왔을 때 영광받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이 8줄로 된 하프의 연주와 함께 올리는 찬회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8번째 달에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완성하였을 때 영광 받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 봉헌의 축제 8번째 날에 그 성전을 당신의 위엄으로 채우시고 내려오시어 자녀들과 함께 사시었나이다.

에제키엘에 의해 계획된 새 성전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으로 다가갈 때 8계단을 통해서 오도록 하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카베오가 모독되었던 당신의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한 8일 봉헌 축제에서 영광받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태어난지 8일째 할례받으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군중을 먹이신지 8일 후에 예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당신의 아드님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봉헌 축제의 8일째에 솔로몬의 성전 현관에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 봉헌되었으며 또한 아버지와 하나임을 드러내셨을 때 영광받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성주간(종려주일~부활대축일의 8일간) 8일째에 죽은 이들로부터 살아나심으로써 영광받으셨나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부활 후 8일 후에 믿지 않는 토마스 에게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영광받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 역사 안에서 드러내셨듯이 이 정화와 봉헌의 8일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당신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께 영광드리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거룩한 8일 봉헌과 그 봉헌의 8일째인 온 인류의 아버지 기념일을 통해 이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당신께로 되돌아와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천주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화자이신 천주 성령님,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매일의 묵상 주제

1일 주제

찬미 (praise)

"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목숨이 있는 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리라." (시편 146:2)

우주와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영광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가장 어두운 깊은 바다를 지어내신분. 거센 폭풍과 부드러운 여름 산들바람을 지어내신 분. 천사들과 땅의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을 지어내신 분. 또한 당신의 모상대로 저를 지어내신 분. 하느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제와 영운히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 섭리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씀으로 그분께 찬미드리십시오.

-첫째날 봉헌이 끝남

2일 주제

감사 (thanksgiving)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마라." (시편 103:2)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사랑으로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마음, 영혼을 저를 위해 특별하게 지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환경들과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시어 제가 보고 듣고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손으로 저를 잡아주시고, 제 삶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통해 제가 당신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묵상해봅시다. 당신만의 표현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3일

봉헌 (offering)

"살아있는 돌처럼,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집으로 세우십시오. 거룩한 사제직이 되도록, 영적인(숭고한) 희생제물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1베드로 2:5)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주셨나이다. 당신 자신까지도 제게 주셨나이다. 제가 무엇을 당신께 드릴 수 있겠나이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받은 것 중에서 당신께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그들의 지상 여정에서의 희생과 고통,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생명 나무의 열매로 봉헌하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오게 된 어둠, 무질서, 혼란들이 당신의 빛과 사랑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제 두 팔을 올려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당신의 아버지다우신 마음(성심)으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께 무엇을 봉헌할 수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축복과 십자가들 까지도)을 되돌려 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합시다.

4일

참회 (repentance)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시자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축복이 있으시기를." (2코린 1:3)

저의 선하신 아버지시여, 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시기도 하시나이다. 어찌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보상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특히 오늘날 시대에, 당신 정의의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를 바랄 수 있겠나이까? 오늘날 당신의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당신께 "아니오"라고 대답하나이다(불순종하나이다). 당신의 뜻을 거부하나이다. 당신을 더이상 믿지 않으며 그들 자신을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그 옥좌에 앉았나이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받아먹었나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받아들였기에 죽음을 얻게되었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은총과 자비로써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당신의 눈물로써 저희를 닦아주소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연인가득한 전사가 되게 허락해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정의의 검이 당신 자비의 사랑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 상처를 드리고 공격했던 수많은 우리의 삶들을 되돌이켜봅시다. 그분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실천해나갑시다.

5일

상속 (inheritance)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로마 8:14-17)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
당신과 당신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을 다해 찬미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관대하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겸손과 사랑을 담아 당신께 봉헌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통하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당신의 용서와 부드러운 자비심에 청원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존재하심에, 당신께서 하느님이심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에, 저를 지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과 더불어 당신께서 진정한 저의 아버지이시며 저 또한 당신의 진정한 자녀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창조물일 뿐 아니라 진정 당신의 자녀라는 이 과분한 기쁨을 어떻게 제 가슴이 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모상을 따라 저를 지어내시어 제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께서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말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일은 벗겨졌고 안개는 걷혔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 듣고 이해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임을! 저는 저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두 팔안으로 되돌아 달려가는 당신의 탕자입니다. 제가 원래 속해 있던, 제 아버지이신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 영원히, 당신의 마음으로 저를 꼭 붙들어주시어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가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봅시다. 이 유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기쁨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피앗(순종) (Fiat)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루카 1:38)

"저의 아버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마태오 26:39)

선하시고 사랑넘치는 저의 아버지,

당신께 "예"라고 대답하는 특권을 제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께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편리하거나 쉬울 때만 하는, 조건을 따지면서 하는 "예"가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하는 "예"가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예"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순수한 사랑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저를 결코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결코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이 땅에 당신 뜻의 조화와 리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당신의 빛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저를 당신께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다른 이들을 당신께로 데려다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의 거룩하신 뜻의 질서와 리듬, 조화 안에서 춤추게 됩니다. 제가 당신의 뜻 밖에서 걸을 때, 저는 혼돈과 무질서, 불화의 어둠 속에서 홀로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뜻으로 저를 초대하시며 손짓하시는 당신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게 해 주소서. 당신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이 고통스럽고 불공평하게 보일 때라도 저는 당신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사물들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제가 왜 저의 십자가들을 짊어져야하는 지를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제게 좋은 것만을 원하십니다. 제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과 지상에도 제가 (당신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예, 아버지!",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신성한 뜻의 리듬과 조화에 "예"라고 순종합니다. 아멘.

당신의 "피앗", "예"라는 응답을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요? 이 변화가 하느님과의 관계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일곱

충성 (Fidelity)

"나는 훌륭히 싸웠고, 경주를 마쳤으며 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2티모 4:7)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사랑, 제 생명이시여, 저는 저의 충성, 희망, 사랑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당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의 맹세로 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제가 신뢰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게 힘과 용기, 인내를 주시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서약을 축복해주시고 저를 온순한 전사가 되게 하시어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부드러운 겹으로 어둠과 싸우게 하소서. 당신은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저 또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저를 부드럽게 사로잡으시어 제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의 충성을 서약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봅시다. 하느님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나요? 당신은 다른 이들도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길 원하나요? 이 땅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온순한 전사(gentle warrior)"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당신이 죽을 때 바오로 성인처럼 훌륭히 싸웠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요?

8일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인 봉헌(consecration)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 봉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들 안에서 살고 그들 안에서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코린 6:16)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 드리는 저의 이 엄숙한 봉헌을 증거해 주시고 받아들여주시기를 청합니다. 지난 7일간의 준비를 마치고, 어떻게 해야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찬미드리고 감사드리며, 제게 주신 모든 축복과 십자가들에 대해 어떻게 봉헌해야하는지,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배우고 있는 이로써 지금 당신께 나왔나이다. 또한 저는 당신을 섬기고 영광드리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한 전사로서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의 진정한 자녀이고 또한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이신 당신께서 저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알고 놀라 눈이 동그랄게 커진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제 생애동안 당신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제 되돌아오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현존 안에서 충만한 지식과 자유로운 의지로 저는 제 자신을 오늘 당신께 전적으로 봉헌합니다. 작은 아이처럼 당신께 다가섭니다. 당신의 아버지다운 성심에 부드럽게 기대어서, 저를 꼭 붙들어서 제가 못 떠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해 주소서. 위대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제가 당신의 다정하고(gentle) 충성스런 친구가 되게 하시어 제 삶의 모든 나날에 당신을 제안에 모시고 다니게 하소서.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낯선 이들에게 당신을 모셔다 드릴 수 있게 하시어 그들이 당신의 빛을 보고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희 안에 사실 때 천국과 지상이 축복 가운데 이어지나이다. 당신의 더 많고 많은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당신께 헌신적으로 봉헌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당신께 기도드리나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뜻이 천국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봉헌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봅시다. "전적인 봉헌 (consecration)"이라는 뜻은 "성화시키다" 또는 "자신을 거룩한 목적으로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요? 하느님 아버지와 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줄까요? 당신의 매일의 일상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봉헌을 살아갈 것인가요?